

인천교육을 들여다보다, ZOOM IN

이슈 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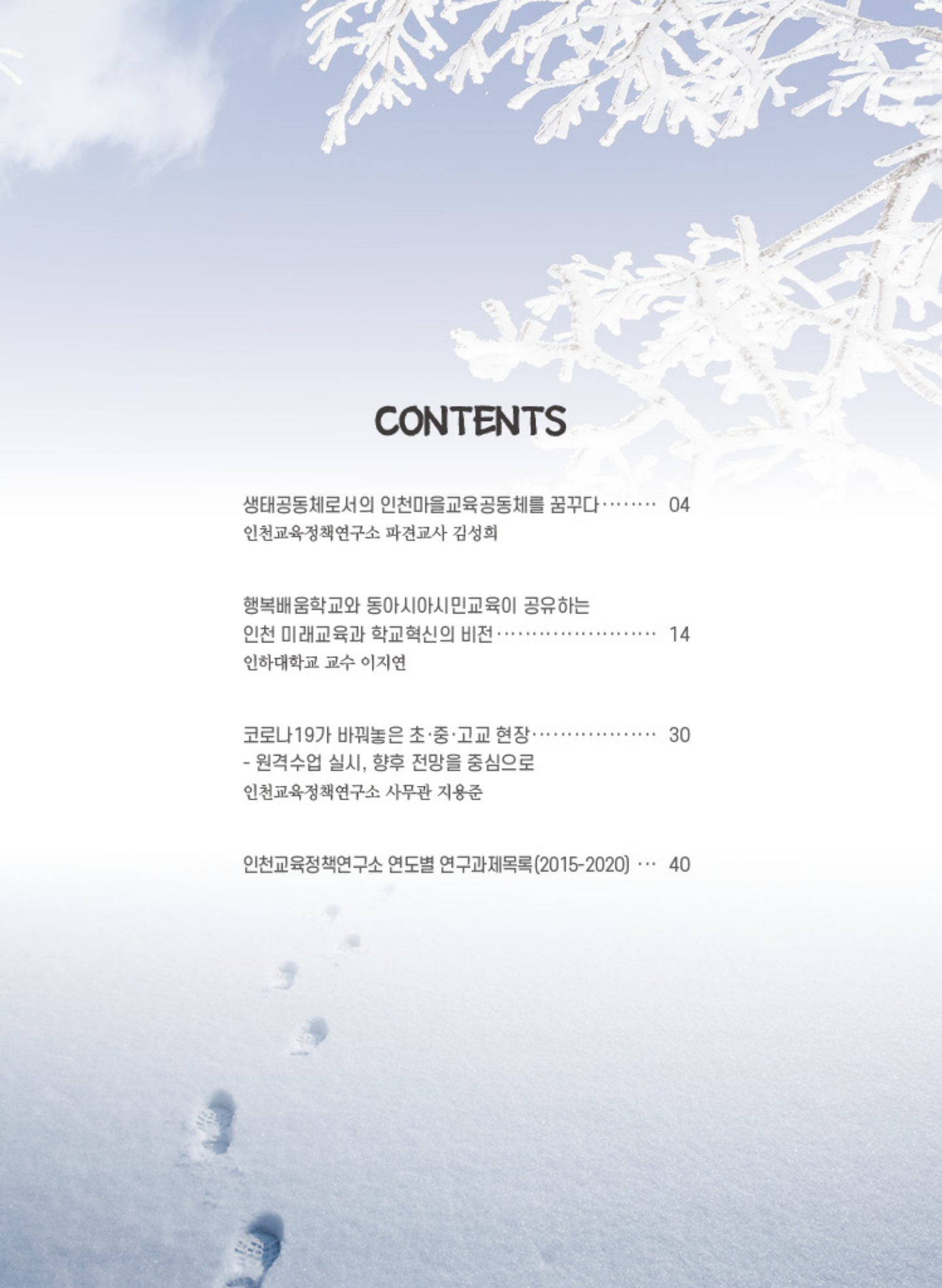
'이슈 줌인(Zoom In)'은 정책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인천교육 현안을 집중 조명하는 소식지입니다.



- 생태공동체로서의
인천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다
-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인천 미래교육과 학교혁신의
비전
- 코로나19가 바꾼 것은 초·중·고교 현장
- 원격수업 실시,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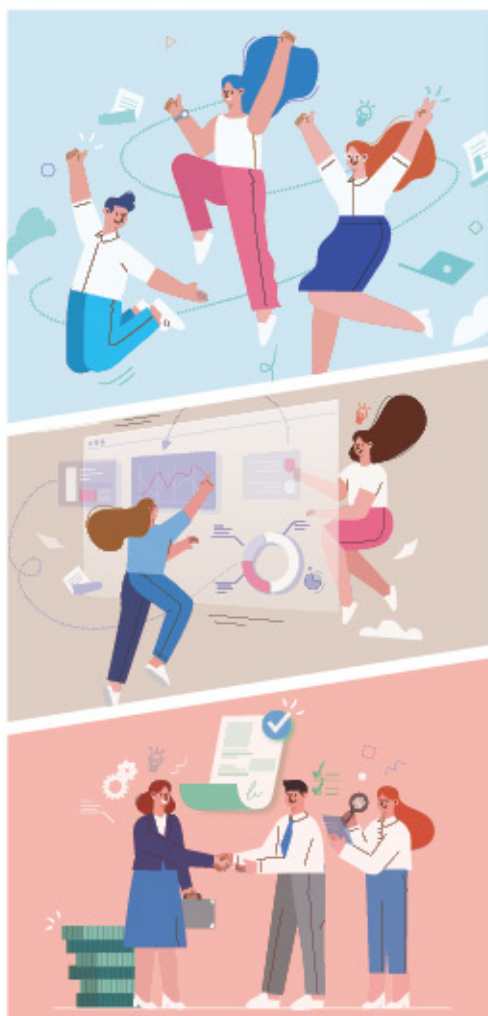
CONTENTS

생태공동체로서의 인천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다..... 04
인천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김성희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인천 미래교육과 학교혁신의 비전 14
인하대학교 교수 이지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초·중·고교 현장..... 30
- 원격수업 실시,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사무관 지용준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목록(2015-2020) ... 40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홈페이지 <http://ice.na.to>

디자인·인쇄 신촌디자인인쇄

[이슈 줌인] 에 원고를 투고하시거나, 메일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420-8207

✉ bs00a@ice.go.kr

※ 본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01

생태공동체로서의 인천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김성희

1.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의 흐름: 공동체 회복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은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의 공동체 복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¹⁾ 개인주의로 파편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성의 회복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넘어 학생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연결망을 세우고자 하는 지역공동체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들어 미래사회에서의 학교 역할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담론으로 수렴된다. OECD에서 내놓은 ‘학교교육의 미래 시나리오’에 따르면 학교는 지역사회를 교육의 마당으로 바라보고, 학교를 돕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핵 사회센터’가 되어야 한다.²⁾ 또한 ‘OECD 미래교육 2030’에서는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 지역은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가져야 하며, 학습은 지역과 연계된 실생활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은 어떤 흐름을 가질까? 우리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의 맥아는 생태운동이나 공동육아운동과 같은 풀뿌리 공동체 운동에서 출발한다.³⁾

1) 심성보 외(2019: 18-19).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실림터.

2) 심성보 외(2019: 18-19).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실림터.

3) 김영철 외(2017: 69-70).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 정치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공동체 운동은 작은 학교, 대안교육을 전제로 한다. 학교 밖에서 이러한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 있었다면, 학교 안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개혁운동에서 혁신학교운동으로, 혁신학교에서 교육혁신지구로,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으로 진화한다.

이제 그 흐름은 학교 안과 밖의 운동이 만나 교육생태계의 구축으로 수렴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학교, 지역, 지자체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생하는, 하나의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생태계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이 이루어지고 이 배움의 결과가 상생 즉 공진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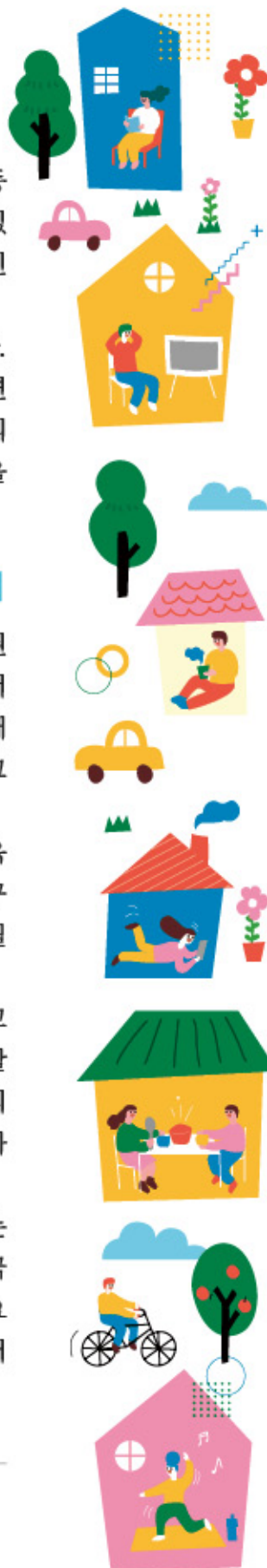
2.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하나의 숲에 다양한 생명이 함께 살 듯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은 논하는 사람에 따라, 행위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현실에서도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한 주체들은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⁵⁾ 공동체의 구성원들, 공동체가 놓인 환경, 마주친 현안, 공동체 형성 과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운동이다.

따라서 100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다면 100개의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억지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단일한 관점으로 묶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름을 인정하고, 대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숲 생태계에 다양한 생명들이 깃들여 함께 살아가듯이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는 같아야 한다. 다름 아닌 ‘가치’이다. 궁극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⁶⁾ 이 자리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정책’,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4) 김용권(2019: 44). <마을교육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5) 심성보 외(2019: 32).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살림터.

6) 심성보 외(2019: 351-352).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살림터.

3.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생태적 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가치’는 같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점으로 보거나,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점으로 보거나, 교육혁신의 관점으로 보거나, 어느 쪽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을 바라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온 마을’은 곧 온전한 ‘생태계’를 말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결국은 그곳의 ‘생태계’가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교육혁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혁신에서 추구하는 배움과 삶이 일치되는 교육이란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다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생태적 공동체’라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숲 생태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자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듯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각 구성원들도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⁷⁾

앞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구축’이 아니라 ‘재발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도, 마을도 모두 하나의 생태계 안에 존재하며, 이미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학교가 무너져서 지역도 함께 나빠졌다고 하거나 반대로 지역이 안 좋아서 학교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러한 말은 서로 탓을 하는 것일 뿐이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생태적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회복시켜, 상생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생태계’의 진화 전략일 수도 있다.



‘생태적 공동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면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같듯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주체들이 ‘생태적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것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 공유는 갈등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정책도 지속성을 모색하게 해준다. ‘생태적 공동체’라는 가치는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7) 김용권(2019: 48-49). <마을교육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살림터.

4.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것은 ‘정책’과 ‘실천’이다. ‘정책’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가치’는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어떠한가?

전국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 현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4곳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2020.9.1.자 현재). 2018년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인천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20년에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에 ‘교육생태계’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나 활성화를 위한 내용(사업)과 형식(지원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늦은 시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쳤고,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은 교육혁신지구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교육혁신지구 정책의 핵심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대에 있다는 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서울의 경우에는 아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서 추진하는 구체적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모델학교와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있다. 이러한 인천 정책의 특징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토대 다지기’와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와 같은 ‘현장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토대 다지기과 현장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다소 늦은 출발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정책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아야 한다.

마을과 학교가 만나 형성한 작은 규모의 ‘생태적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는 물론, 기초자치 단위, 광역 단위의 거버넌스가 이들을 둘러싸고, 거대한 ‘생태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거버넌스는 추상적 기구가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실현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구여야 한다.⁸⁾

기초자치 단위의 거버넌스는 보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광역 단위의 거버넌스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이라는 생태계에서 성장하지만, 고개를 들어 본다면 인천광역시라는 조금 더 큰 생태계에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시야를 확장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시민이며, 동시에 세계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아시아와 세계라는 거시 생태계는 평소에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정세나 세계의 환경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 생활 속에서 그 생태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8) 김태정(2019).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실림터.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하였다. 물론 여기서의 마을이 도시보다는 농촌을 향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마을이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삶, 마을에서의 비폭력 실천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간디의 믿음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학생들은 학교와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동아시아의 시민, 세계의 시민임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평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기초자치와 광역 단위의 거버넌스가 해주어야 할 것이다.

5.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 아주 오래된 미래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이 ‘생태적 공동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정책은 마을연계모델학교와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이다. 그런데 이 모델학교와 교육과정, 마을학교들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서울의 ‘성미산학교’나 경기의 ‘몽실학교’처럼 유명세를 타거나 브랜드화된 것은 없지만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에서,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이제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인천의 마을공동체는 지역별 공부방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부평구 십정동의 ‘해님 놀이방과 공부방’, 동구 만석동의 ‘기차길옆공부방’, 연수구 청학동의 ‘마을과 이웃’ 등 지역의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들이 생겨났고 인천광역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학교 밖의 마을공동체가 공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학교 안에서는 교육혁신의 노력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가령 구월서초등학교의 경우,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 모임이 활발해졌고, 이 모임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과 만나게 되어, 지금의 마을연계학교로 이어졌다. 선학중학교는 행복배움학교가 되면서 수업혁신을 위해 배움의 공동체를 시작하였고, 여기에 마을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의 문제도 해결하고, 마을방과후학교로 이어졌다. 인천송천고등학교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을 마을연계교육으로 확장하였다.⁹⁾

이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두 가지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물론 이 두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당초 마을교육공동체의 사례는 대표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학교마다, 마을마다 구성원이 다르고, 환경과 현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두 사례를 통해 내 학교, 내 마을만 바라볼 때 놓치기 쉬운 점, 정책으로만 바라볼 때 간과하기 쉬운 점, 이러한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9) 김태은 외(2019: 130-138).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사례1. 학교와 마을이 만나서 꾸준히 진화하는 인천서흥초

인천서흥초등학교는 2015년 행복배움학교가 되면서 1년동안 교직원들이 ‘왜 마을인가’라는 기본부터 토론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오랜 숙의의 과정을 통한 합의를 이루고 마을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2016년 이후 본격적인 마을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마을공동체들(일명 ‘배다리공동체’)이 함께 하게 된다. 특히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참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2018년 마을연계모델 학교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19년에는 돌봄과 방과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협동조합을 만든다.¹⁰⁾

이처럼 인천서흥초등학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육혁신의 노력이 학교 밖으로 향하고, 학교 밖의 마을공동체와 만나면서,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진화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서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천서흥초는 고립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정책사업이 아닌, 진정한 ‘생태적 공동체’로 진화한 것이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예시로 지금 인천서흥초의 홈페이지에는 ‘마을연계 적극협력기관의 긴급돌봄교실’, ‘적극협력 마을기관의 방학 프로그램’ 등이 공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인천서흥초가 지금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교직원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결을 내어주지 않는 구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어떤 학교, 어떤 공동체가 추진하더라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과정, 타 기관과 합을 맞추어 가는 과정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일 것이다.

인천서흥초등학교가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교직원들이 오랜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힘들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혁신 노력에 동행해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인천에는 학교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학교장의 혁신 마인드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경감 지원은 교육혁신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10) 김태은 왜(2019: 142~165).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인천서흥초와 같이 학교 안의 교육혁신 노력이 마을과 만나 꽃을 피운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교실 단위에서 작은 규모로 실천하고 있는, 숨어있는 사례들도 더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의 교실, 학교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앞서 100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다면 100개의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있다고 말했듯이, 1개의 실천 사례를 10개의 학교가 공유한다면 10개의 새로운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자고로 좋은 것은 입소문을 내라고 했다. 주변에 이처럼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이다.

❖ 사례2. 교육생태계로서 '진강산마을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도전

인천서흥초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마을과 만난 사례라면, 이번에는 다소 흔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마을이 중심이 된 사례이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마을교육공동체는 더 많은 학교를 품게 되어 좀더 큰 교육생태계를 만들게 된다. 바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이다.

2009년 강화군 양도면의 폐교 위기에 있던 양도초등학교는 학교장과 교사가 합심하여 강화의 생태, 역사 등의 지역적 이점을 살린 계절학교를 연다. 이때 강화도 외부에서 계절학교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주해 오면서 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여기에는 작은 학교의 유연성, 학교장의 의지, 대안적 교육과 삶을 꿈꾸는 학부모와 주민들, 강화도라는 지역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¹¹⁾

이후 학교, 학부모, 학생, 마을이 조금씩 교육공동체로서 틀을 갖추어갈 무렵 학교장의 전근으로 구동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이때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교육 흐름을 이어가고자 머리를 맞대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인근의 산마을고등학교와 자람도서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지금의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때마침 양도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에, 동광중학교 내부에서도 마을교육과 학교혁신의 움직임이 생겨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다.

현재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일종의 연합체로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인근의 학교들이 운영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육, 문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 밖에서의 대안적 교육과 삶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람도서관과 마을사랑방이 주축이 되어 독서축제, 마을서당, 각종 캠프 등을 열면 인근의 아이들이 참여한다. 또한 졸업생들이 자기 마을에 정착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 아이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마을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일부가 강화도에 남아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를 마을공동체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¹²⁾

11) 김태은 외(2019: 142~165).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12) 김성희 외(2020: 45~46). 강화군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이렇게 보면 양도초에서 시작한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지금은 마을로 넘어가 마을공동체로서, 학교는 주변으로 밀려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학교를 배제하고 마을공동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양도초등학교의 혁신적 교육과정과 산마을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콘텐츠가 작용하여 지금의 각종 프로그램과 마을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합학부모회 지원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 강화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꾸준히 지원하여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나의 학교를 짚어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양도초, 조산초, 동광중, 산마을고와 같이 다양한 학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¹³⁾ 즉,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는 하나의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교육생태계 안에 다양한 학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양도교육포럼’에서 잘 드러난다. ‘양도교육포럼’은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의 소모임들 중 하나로 양도초, 조산초, 동광중, 산마을고의 학교가 모여 서로 교육과정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여기서 초·중·고 공동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기는 하지만 공동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지역의 아이들이 배움과 삶이 일치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는 단위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넘어서 학교급을 아우르는 좀더 큰 ‘교육생태계’를 가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현재 그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향해 도전 중이며 우리는 그 도전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13) 김태은 외(2019: 142-169).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6.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

빨리 가려면 혼자 떠나고 멀리 가려면 함께 떠나라.

마을교육공동체는 ‘생태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앞서 두 사례를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생태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생명체가 시들어가면 그 여파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주체로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여겼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태계 전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된다.

인천서흥초에서 학생들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었다. 초등학생들이라고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진강산마을 교육공동체에서는 산마을고등학교의 협동조합 동아리인 ‘마테’의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학교로 유명한 ‘성미산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리를 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나누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마을살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도 마을에서 자기 자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주민이라는 것이다.¹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동아시아,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교복을 입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와 주민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의 사례에서 학부모는 주민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대안적 교육의 흐름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고 이 희망을 주체가 되어 실현해 나갔다. 이들은 내 아이의 성장만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았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는 마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보고서에서는 거의 모든 사례분석에서 교사(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 이는 인천서흥초나 진강산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적으로 이끌던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면 그 동력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고등학교가 인근의 마을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진로체험박람회, 진로동아리 프로젝트, 진로캠프 등을 활발하게 추진



14) 성미산학교(2016: 26-27). <성미산학교의 마을 만들기, 마을학교>, 교육공동체넷.

15) 김태은 외(2019: 142-165).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하였으나 담당교사의 이동과 함께 중단된, 안타까운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키맨이라고 불리는 일부 교사에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생태계에서 교사의 주체성이 건강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던 것은 아닐까?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서 교사가 정책 시행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었건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사가 건강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서 마을과 만나는 것이다. 즉, 마을교육과정으로 수업하는 것이다.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부가적 업무라고 느낀 경우는 평소에 하는 수업과 이 정책이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잠깐 소개했던 구월서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과 만났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는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⁶⁾ 그동안 교사들이 업무 과중으로 시달린 것은 수업,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과 동떨어져 진행된 정책들로 인해 새롭게 부과된 업무들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을교육과정만큼은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마을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역량이 강화된 마을교육활동가들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들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숲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들로 가득할수록 건강해진다. ‘생태적 공동체’로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고 소통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길을 떠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길을 떠나라고 했다. ‘생태적 공동체’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오래된 미래’이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오래 전부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육혁신의 움직임이 꾸준히 실천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공동체의 사례를 찾아가서 진술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타 지역의 소문난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 학교, 내 마을과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앞서 사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마다 마을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인천이라는 중간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서로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6) 김태은 외(2019: 142~165).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02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인천 미래교육과 학교혁신의 비전

인하대학교 교수 이지연

1. 미래교육, 학교혁신, 그리고 혁신학교

1) 미래교육과 역량중심 교육 패러다임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급변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오고 있는 질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급부상으로 기존 인터넷을 통한 사람 간의 연결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 간 연결 등 지능화된 연결이 가능해지는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과 산업의 재구조화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지식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아래 [표 1]과 같이 미래사회에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core competencies 을 매치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래 역량중심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 조직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필수역량(Dubois, 1993)

표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 및 학습자 역량 연계

미래 직무 역량		OECD(2015)	UNESCO(2011)	WEF(2018)
사고력	복잡한 문제해결	●	●	●
	비판적 사고	●	●	●
	창의성		●	●
실행능력	인지적 유연성	●	●	●
	판단과 의사결정	●	●	●
	대인관계	●	●	●
	타인과의 협조	●	●	●
인성	협상	●	●	●
	정서지능		●	●
	서비스 지향성		●	●
미래 학습자 역량		CCR ²⁾	싱가포르 교육부(2015)	교육부(2015)
지식	학문적 지식	●	●	
	간학문적 지식	●	●	
	ICT 기술 활용			●
사고력	비판적 사고	●	●	
	문제해결능력		●	
	창의력	●		●
실행능력	의사소통	●	●	●
	협업	●	●	
	자기주도 및 자기배치	●	●	●
	목표설정	●		
	계획과 실행		●	
인성	태도, 가치	●		●
	윤리와식, 시민의식	●	●	
	정서적 안정, 감수성	●		●

출처: 이지연, 이은배, 강지혜(2018) 재구성

표 2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 및 학습자 역량 연계

분류	핵심 키워드	미네르바 스쿨(2014)	NGLC ³⁾ (2018)	OECD Education 2030(2018)	P21 ⁴⁾ (2007)
목표	창의적 문제해결	●	●	●	●
	세계시민	●		●	●
성취기준 · 평가	역량기반	●	●	●	●
	보편적 완전학습	●	●	●	●
	과정중심 평가	●	●	●	●
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개별화, 맞춤형	●	●		●
	융합적, 유연한 운영	●	●		●
	인성, 감성, 공감		●	●	●
	지역연계를 통한 다양한 경험		●	●	●
교육방법	프로젝트·문제중심 학습(PBL)	●	●	●	
	협동학습	●	●	●	●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	●	●	●	●
교육공간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학습공간	●	●		
	학습공간의 확장	●	●	●	

출처: 이지연, 이은배, 강지혜(2018) 재구성

2)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4C(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협업능력)로 대표되는 21세기 핵심역량을 제안한 미국의 비영리 교육연구기관 (<https://curriculumredesign.org/>)

3) NGLC(Next Generation Learning Challenges):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노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교육단체 (<https://www.nextgenlearning.org/>)

4)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1세기 핵심역량에 기반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입과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위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https://www.battelleforkids.org/networks/p21>)

2) 교육혁신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교와 체제적 학교혁신

교육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란 혁신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라 할 수 있으며, 학교혁신은 1)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수업, 학급운영, 교직 문화, 학교경영, 조직체계 등에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혁신을 보편화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김성천, 2009); 2) 학교구성원들의 사고, 문화의 변화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행으로 인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장훈, 김명수, 2011); 그리고 3)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체제 전 영역에 걸친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미래교육을 향해가는 것(이은배, 강지혜, 이지연, 2019)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혁신의 주요 영역 및 영역별 세부요소,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학교혁신의 주요 영역 및 세부요소, 중점 추진 과제

주요 영역	세부 요소	중점 추진과제
학교운영	학교 성격	교육내용 다양화로 학교별 특성화
	교육원리	협력, 지속가능성
	학교운영	수평적, 민주적
	교육복지	공공성,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행정	상향식, 교원자발성 중시
교육과정 · 수업	교육과정	진로중심, 전인교육
	학력	역량중심, 모든 학생의 수월성
	교수·학습	프로젝트, 체험 학습
	평가	인지□정의 영역 평가, 과정중심 평가
교원전문성	교원정책	교사의 자발성 존중
	교사연수	교사학습공동체, 수업 공개, 수업 나눔
학교 환경	문화	자율, 존중과 배려
	공간	개방적 창의적 공간 활용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시도

출처: 이지연, 권나영, 강지혜, 오정현, 이은배(2019) 재구성

여러 선행연구들은 한결같이 학교혁신은 반드시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 교사와 행정가의 임용 및 자격조건을 포함한 근무상황,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의 속담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업혁신이 가능하려면 담당교사의 관심과 노력 뿐만 아니라 전 학교차원에서의 혁신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질적인 수업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러한 변화가 지속적 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개혁이 아니라 학교라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전면적이고 체제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질문] □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과연 □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 교육이 교실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 학교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생활 전반에 □ 교육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참으로 다양한 이름의 교육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주요 교육의제로 각광을 받다가도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정책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또다른 교육의제에 밀려 흐지부지되는 안타까운 예가 많았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8)의 <세계시민교육학교 만들기>라는 가이드북에서 가져온 인용문 원문(3쪽)에서는 □ 자리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평화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수많은 교육 중 어떤 교육을 넣어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며 학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발전가능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학교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교육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 에 어떤 교육을 채워 넣더라도, 학교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생활 전반에 □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그저 해당 학교가 추진하는 또다른 사업과제, 또는 잠시 교육과정에 추가로 편성한 일개 교과목에 그치고 학교구성원들과 조직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와 문화적 맥락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3) 교사의 자발성에 의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제도화한 혁신학교

2009년 국내에서 최초로 13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효시가 된 경기도교육청의 정의(2019)에 따르면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이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성공적인 학교혁신의 핵심은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의지와 전면적이고 전학교적인 차원에서의 체제적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범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윤리적 생활공동체’의 4대 중점과제를 큰 축으로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구성원들이 세부 운영과제를 설정하고 기존의 통제적 교육과 수직적 학교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모델(그림1 참조)은 서울, 강원, 전남, 인천 등으로 확산되어 2019년 3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1,432개교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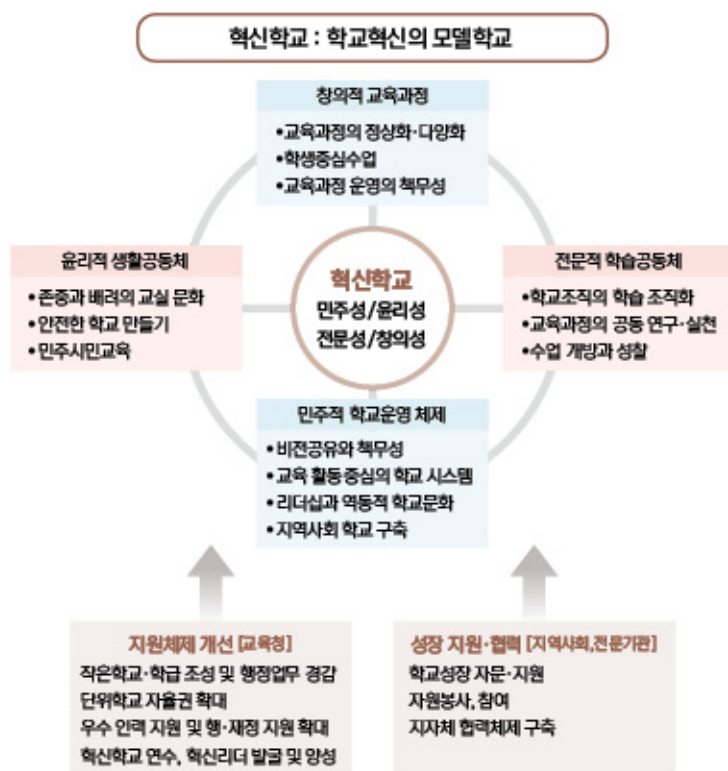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모형

경기도교육청(2015)

‘행복배움학교’는 출범 6년차를 맞는 인천형 혁신학교를 일컫는 명칭으로,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의 모델학교”(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이다. 올해 초 신규 지정된 10개교를 포함하여 2020년 11월 현재 모두 72개교가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어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행복배움학교의 운영원리 및 중점추진 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4], [그림 3]과 같다.



그림 2 행복배움학교 기본현황 및 연도별 지정현황

출처: 인천시교육청, 2018~20 학교혁신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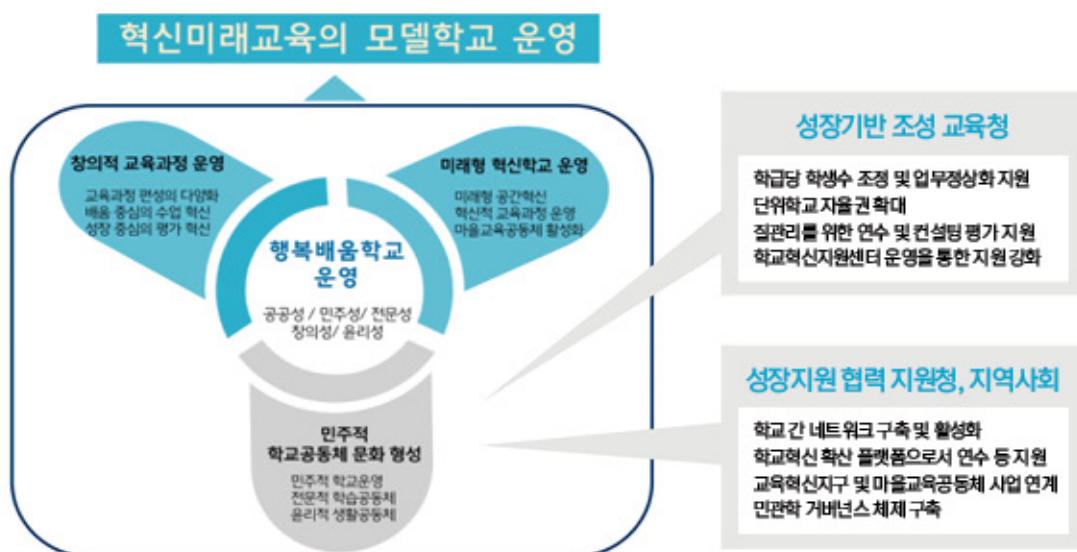


그림 3 행복배움학교 운영모형 및 원리

인천시교육청(2020) 재구성

표 4 행복배움학교 운영 원리

교육과정 운영 원리	학습자 중심	• 학습자를 배움의 권리를 가진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한다. • 학습자의 삶을 위한 참된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둔다.
	미래핵심 역량 신장	•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지역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교의 맥락과 학교공동체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 전통적 학력관을 벗어나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위해 학교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공동성장	•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 •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학교공동체 운영 원리	교수·학습 우선	• 학교의 행·재정 운영은 교수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조직 및 업무 체계를 재구조화 한다. •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위한 유·무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통과 협력	• 학교공동체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 학교공동체 구성원은 모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 • 학교와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자율과 책임	• 학교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참된 학력에 대해 학교공동체 모두가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어간다. • 학교장의 권한은 교수학습우선 원리에 따라 하향 위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되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과한다. • 자생적인 자치 및 연구 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공동체의 집재된 역할을 극대화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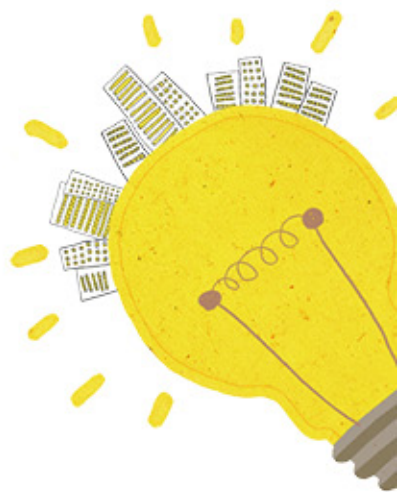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재구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학교는 1) 물리적 학교 공간과 전통적 학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교육체제를 완전히 탈피하여 첨단 ICT 기술에 기반한 가상의 플랫폼 교실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7개 도시를 이동하며 프로젝트 수업을 수행하는 미네르바 스쿨과 같이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새롭고 실험적인 모습이나 2) 현재 우리 사회와 교육체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을 바라는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기존 교육체제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볼 수 있다. 행복배움학교는 미래 학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후자의 관점에서 혁신미래교육의 모델발굴을 위한 시범학교의 성격을 가진다.

4)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2020)의 정의에 따르면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각론) 개발에 이어 올해부터 20개 초·중학교가 동아시아시민학교로 선정되어 시범 운영되는 등 민선7기 교육감의 교육공약이자 정책과제인 ‘동아시아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행복배움학교에서 기존에 추진중인 혁신미래교육 관련 중점 추진과제 외에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또다른 과제로 간주하여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인천 혁신미래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 모델학교인 동아시아시민학교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행복배움학교에서 정해진 내용과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 부가적 교육과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빛깔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행복배움학교가 기존의 교육과정과 학교공동체를 더욱 특색있고 풍요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유·무형의 교육자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본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의 이모저모

이 장에서는 행복배움학교 현장방문(초등 2개교, 중등 1개교), 행복배움학교 및 동아시아 시민학교, 일반학교 교사간담회(총 7회, 초중고 교사 21명), 행복배움학교 및 일반학교 관계자 대상 온라인설문(총 911명 응답자 중 주관식 응답자 42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및 설문 텍스트자료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를 통해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란 텍스트로 구성된 관련자료에 담긴 키워드의 연결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 및 하위 키워드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들로 구성된 한 학급을 떠올려보자.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를 만나면 자유롭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때 특정 학생들끼리 자주 만나고 서로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되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학급 전체로 보자면 한 무리 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학급활동을 주도하는 리더격의 학생과 리더를 따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리더는 관계의 구조에서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이처럼 ‘관계구조’에 대한 묘사와 분석을 통해 텍스트로 구성된 자료에서 특정 키워드가 갖는 ‘영향력’의 위치와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다.⁵⁾

●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란:

네트워크의 키워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된 키워드들이 많을 수록 핵심 키워드로 보는 방법. 국지적인 범위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전체 네트워크내에서의 영향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움

●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개체의 위치가 중심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의 키워드에서 연결선을 따라 다른 키워드에 도달할 때 가장 많이 거치게 되는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보는 방법. 상이한 키워드 집단을 연결하는 키워드일수록 매개중심성이 높으며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전체 연결망에서 상위 개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자료 해석 방법:

- 원의 크기: 크기가 클수록 중심성이 높음
- 선의 존재: 키워드 간 연관성이 있음을 표시
- 선의 길이: 짧을수록 연관성이 큼을 의미
- 망의 형태: 지역적으로 조밀한 위치의 키워드들을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연결

5) 네트워크 분석의 의미를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본 예시의 출처는 Live Better Life(2015년 12월)의 ‘착한통계 시리즈X’임

1) 행복배움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키워드 분석

- 초·중·고를 모두 통합하여 행복배움학교와 일반학교를 평균적으로 비교해본 아래 [표 5]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된 키워드⁶⁾는 ‘교사’이며 연결중심성 정도로도 가장 영향력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배움학교는 ‘사람, 문화, 협력,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키워드⁷⁾들이, 일반학교는 ‘교육과정, 공간, 활동’과 같이 키워드⁸⁾들이 빈번히 언급되었다.
- ‘공동체성’과 ‘문화’를 강조하는 행복배움학교의 특성은 학교급을 구분하여 분석할 때 더 두드러졌는데, [표 6]과 같이 행복배움중은 ‘철학, 존중, 문화, 구성원’이, 일반중은 ‘활동, 방법, 공간’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어감의 ‘자율성’과 ‘자유’가 상위 단어로 언급된 점도 흥미롭다.

표 5 학교유형별 핵심 키워드 분석

유형 순위	행복배움학교(초·중·고 통합)				일반학교(초·중·고 통합)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1	교사	570	교사	0.724	교사	275	교사	0.767
2	수업	348	수업	0.586	업무경감	218	수업	0.667
3	학생	261	교육	0.552	수업	178	학생	0.500
4	관리자	258	혁신학교	0.483	교육과정	165	자원	0.467
5	학년	221	학부모	0.483	공간	138	교육과정	0.467
6	혁신학교	192	학생	0.448	학생	137	교육	0.433
7	교육	180	교육과정	0.448	교육	107	공간	0.433
8	학부모	167	학년	0.379	학년	91	활동	0.400
9	업무경감	143	자원	0.379	평가	83	활성	0.367
10	사람	123	사람	0.379	연수	83	연수	0.333
11	교육과정	112	학교혁신	0.345	활동	79	업무경감	0.333
12	평가	87	업무경감	0.345	자원	78	참여	0.300
13	자원	84	문화	0.345	변화	70	인식	0.300
14	문화	78	협력	0.310	확보	65	의사소통	0.300
15	시민	68	지역사회	0.310	교실	65	변화	0.300

표 6 중등 학교유형별 핵심 키워드 분석

유형 순위	행복배움학교(중등)				일반학교(중등)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1	수업	30	학생	0.256	교사	35	교사	0.375
2	업무경감	25	교육	0.231	업무경감	28	수업	0.188
3	교사	24	교사	0.231	수업	27	학생	0.188
4	학생	14	자율성	0.205	교과	25	자유	0.156
5	평가	13	철학	0.179	학생	24	의사소통	0.156
6	교과	10	평가	0.128	공간	23	활성	0.156
7	연수	9	학교혁신	0.128	변화	20	활동	0.156
8	교육	9	수업	0.103	교육과정	20	방법	0.156
9	생활	8	관리자	0.103	교실	18	변화	0.125
10	자율성	6	존중	0.103	평가	15	공간	0.125
11	시수	6	문화	0.077	활동	13	교과	0.125
12	방법	6	구성원	0.077	개선	13	학년	0.125
13	교실	6	연수	0.077	확보	12	시수	0.094
14	활동	5	전문성	0.077	학년	12	개선	0.094
15	혁신학교	5	업무경감	0.051	전문성	12	인식	0.094

6) 공통키워드는 초록색으로 표시

7) 행복배움학교의 특징적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

8) 일반학교의 특징적 키워드는 파란색으로 표시

네트워크 시각화

- 아래 [그림 4]에서 학교유형별로 키워드 군집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배움학교는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사람, 문화, 생활, 학부모, 협력’등 공동체성과 관련한 단어간 연결이 좀더 촘촘하고 빈번한 반면, 일반학교는 ‘관리자’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단어간 느슨하고 산발적인 분표를 나타내고 있다.
- 학교급별로 키워드 군집을 비교한 아래 [그림 5]에서 최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중심으로 행복배움중과 일반중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행복중의 경우 ‘교육과정-평가-수업-교육방법’이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일반중의 경우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없이 ‘수업-방법-평가’가 원거리에 독립적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 아래 [그림 6]은 행복배움학교를 학교급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비교해본 것으로, 행복배움초의 경우 행복배움중에 비해 좀더 촘촘하게 발달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혁신학교 지정현황과 임시나 평가의 부담이 적고 학년별로 담임교사의 수업재량권이 강한 초등학교에서 좀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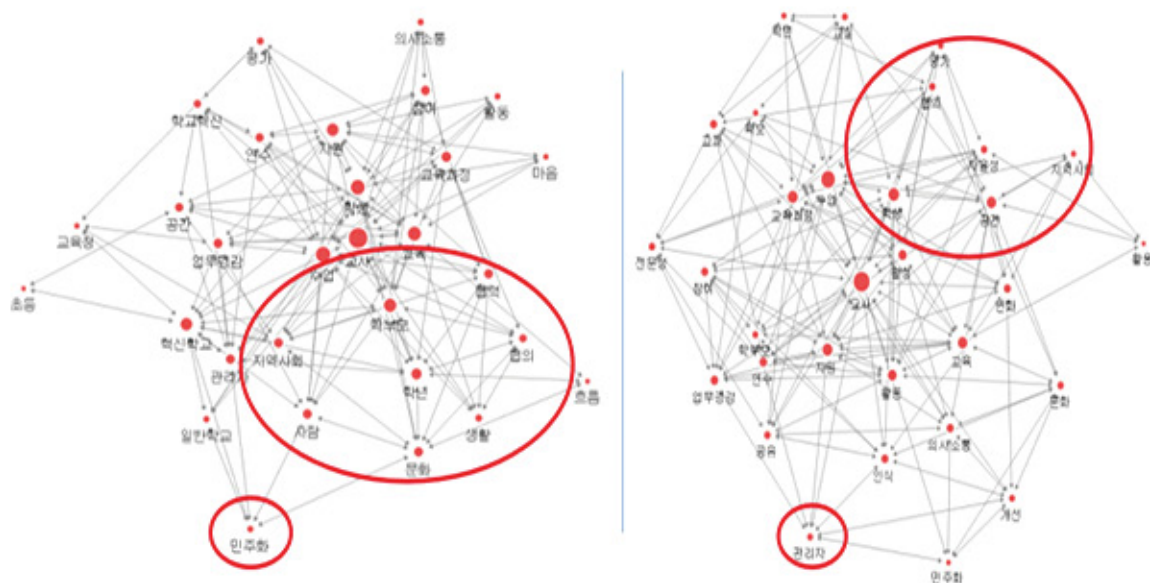


그림 4 행복배움학교 vs. 일반학교 네트워크 시각화 (초중고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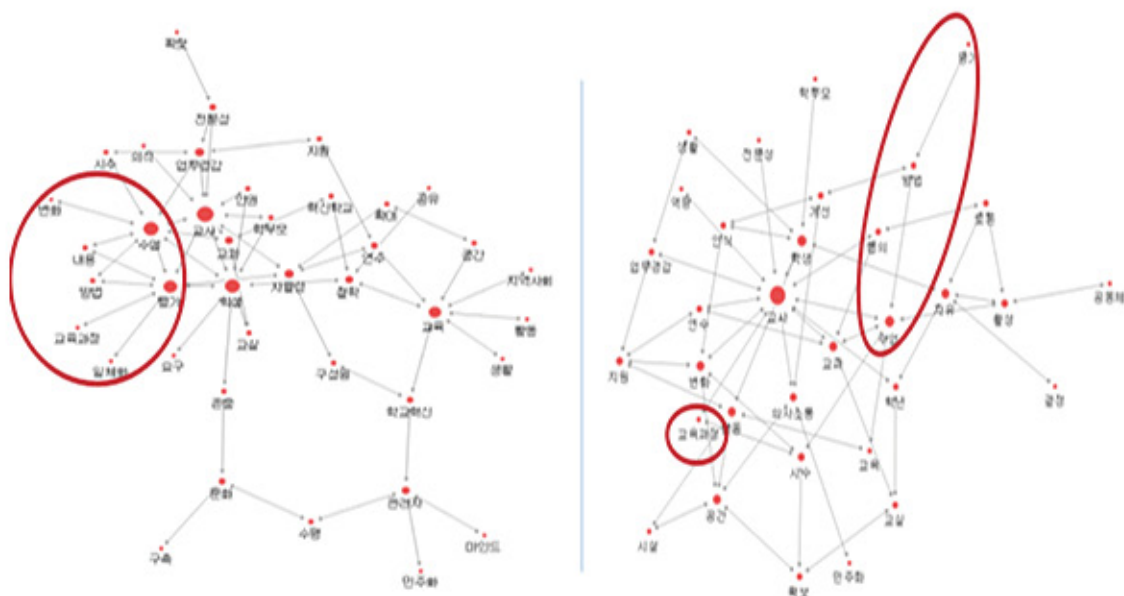


그림 5 행복배움중 vs. 일반중 네트워크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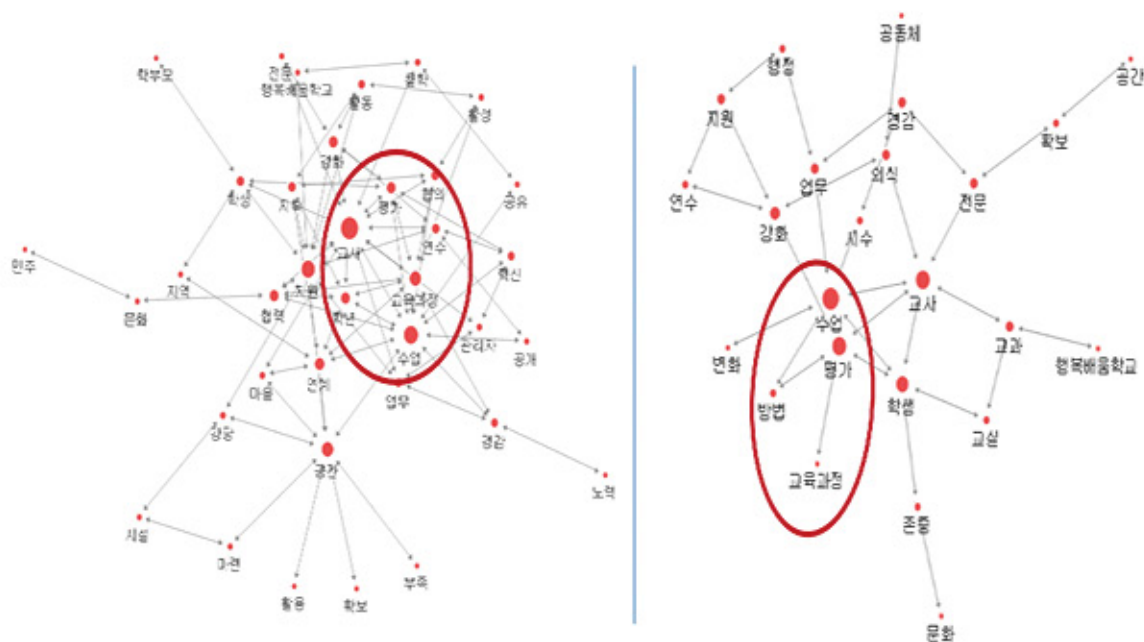


그림 6 행복배움초 vs. 행복배움중 네트워크 시각화

2)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과 동아시아시민학교 비교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과 관련 된 교육청 연수자료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동아시아시민학교로 선정된 학교 현장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과 동아시아시민학교 관련자료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그림 6]과 같다.

키워드 분석

-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과 동아시아시민학교 모두 ‘동아시아’와 ‘지역사회’를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언급하고 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학교문화, 진로’ 등 상대적으로 고차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동아시아시민교육학교 교사 녹취록과 사업 계획서에서는 ‘의사소통, 이해’와 같은 학습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상위단어로 언급되었다.

표 7 동아시아시민교육 핵심 키워드 분석

유형 순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				동아시아시민학교(초·중 통합)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1	동아시아	1314	동아시아	0.048	동아시아	617	동아시아	0.116
2	지역사회	698	관계	0.042	교육	366	지역사회	0.055
3	문제해결	641	지역사회	0.038	세계시민	282	의사소통	0.055
4	세계시민	500	문제해결	0.032	의사소통	169	교육	0.051
5	교육	482	학생	0.030	학교문화	146	세계시민	0.046
6	관계	388	교육	0.027	이해	127	이해	0.044
7	사회	387	세계	0.025	활동	120	관계	0.036
8	세계	332	국가	0.021	관계	114	학교문화	0.030
9	진로	315	학교문화	0.020	국제	91	공동체	0.027
10	이해	279	세계시민	0.020	교사	91	역량	0.026
11	학교문화	276	의사소통	0.018	인권	88	학생	0.026
12	국가	267	진로	0.017	지역사회	76	사회	0.024
13	학생	257	이해	0.017	교육과정	69	글로벌	0.016
14	협력	212	사회	0.015	체험	68	국제	0.013
15	인간	202	상호작용	0.014	학생	67	교사	0.012

네트워크 시각화

- 아래 [그림 7]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과 동아시아시민학교의 키워드 군집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과정의 경우 ‘평가’를 기점으로 ‘진로, 직업, 미래, 자원’과 같은 교육목표 관련 군집과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관계, 상호작용, 참여’ 등의 연관어들이 매우 촘촘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학교현장의 경우에는 ‘체험’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의사소통, 학교문화’ 등의 연관어들이 균등하게 분산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아시아시민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누어 비교한 아래 [그림 8]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창체’를 기점으로 ‘체험, 환경문제, 활동’의 군집이, 중학교는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교과, 주제’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비교과의 창체를 중심으로, 중학교는 교과수업에서 주제중심 활동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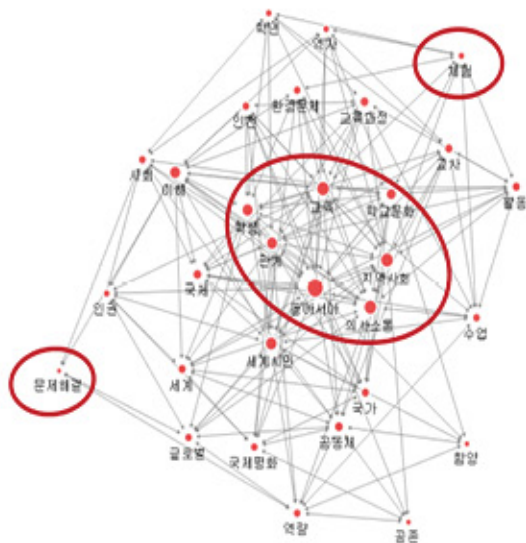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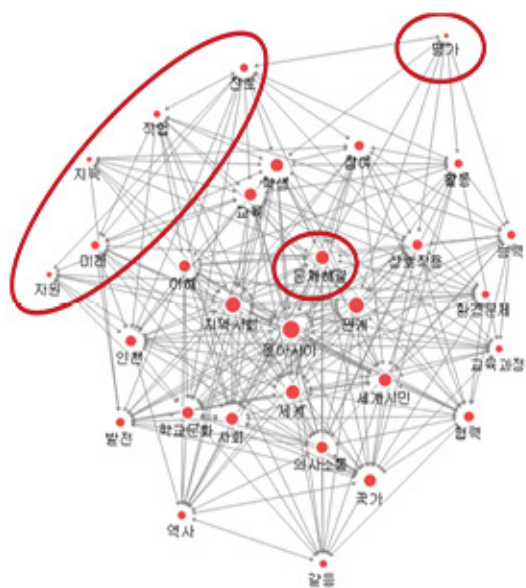


그림 7 동아시아시민교육과정 vs. 동아시아시민학교 네트워크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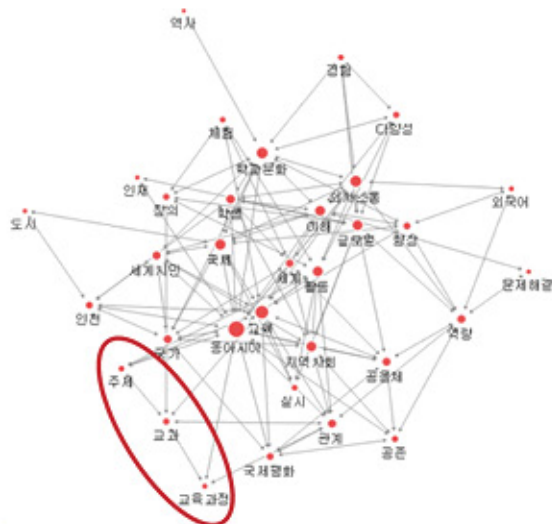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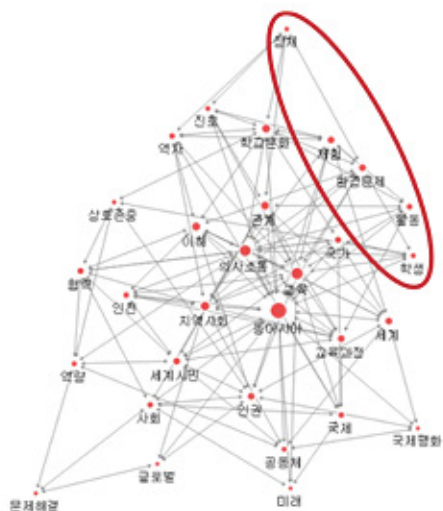


그림 8 동아시아시민초 vs. 동아시아시민중 네트워크 시각화



3)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 비교

키워드 분석

- 초·중(고)를 모두 통합하여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를 평균적으로 비교해본 아래 [표 8]에서 행복배움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같은 학교구성원과 혁신주체를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빈번하게 언급된 반면, 동아시아시민학교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세계시민, 국제, 인권’과 같이 주제중심적인 키워드들이 상위단어로 언급되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람, 시민, 지역사회, 문화’와 같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키워드들은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 모두에서 주요 키워드들로 나타나,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교육이 공유하는 혁신미래교육의 가치는 ‘공동체성’과 ‘실천적 시민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학교유형별 핵심 키워드 분석

유형 순위	행복배움학교(초·중·고 통합)				동아시아시민학교(초·중 통합)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출현 빈도수		연결중심성	
1	교사	570	교사	0.724	동아시아	617	동아시아	0.116
2	수업	348	수업	0.586	교육	366	지역사회	0.055
3	학생	261	교육	0.552	세계시민	282	의사소통	0.055
4	관리자	258	혁신학교	0.483	의사소통	169	교육	0.051
5	학년	221	학부모	0.483	학교문화	146	세계시민	0.046
6	혁신학교	192	학생	0.448	이해	127	이해	0.044
7	교육	180	교육과정	0.448	활동	120	관계	0.036
8	학부모	167	학년	0.379	관계	114	학교문화	0.030
9	업무경감	143	지원	0.379	국제	91	공동체	0.027
10	사람	123	사람	0.379	교사	91	역량	0.026
11	교육과정	112	학교혁신	0.345	인권	88	학생	0.026
12	평가	87	업무경감	0.345	지역사회	76	사회	0.024
13	지원	84	문화	0.345	교육과정	69	글로벌	0.016
14	문화	78	협력	0.310	체험	68	국제	0.013
15	시민	68	지역사회	0.310	학생	67	교사	0.012

네트워크 시각화

- 아래 [그림 9]에서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시민학교의 키워드 군집을 비교해보면 앞서 핵심 키워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문화’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군집이 네트워크 중앙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행복배움학교는 ‘민주화’가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점인데 비해 동아시아시민학교의 경우 ‘문제해결’과 ‘체험’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두 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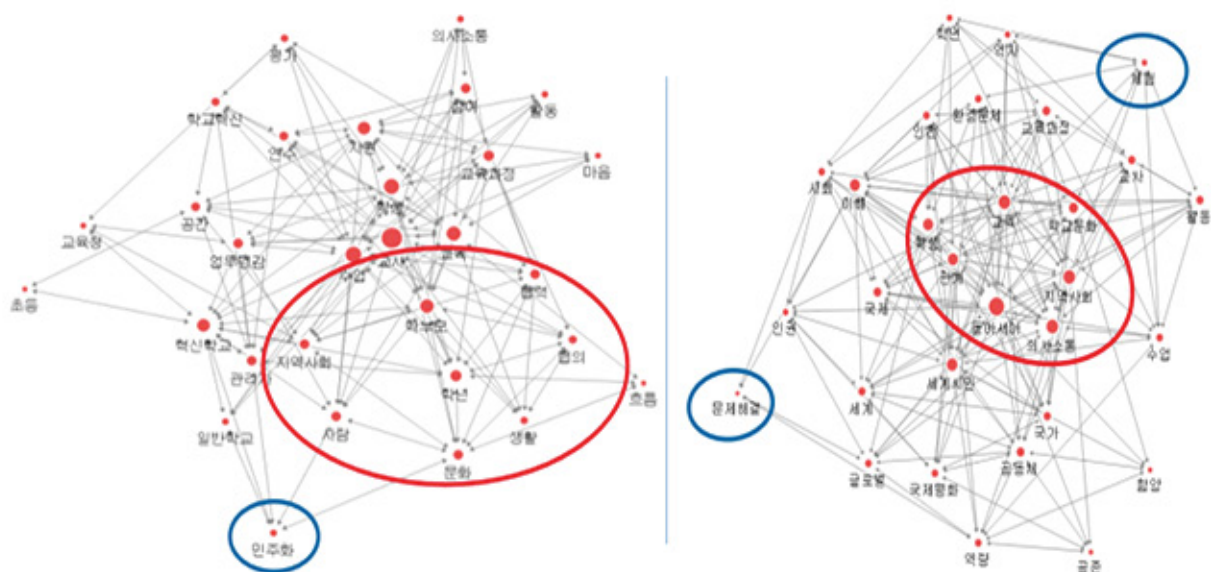


그림 9 행복배움학교 vs. 동아시아시민학교 네트워크 시각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복배움학교는 시민교육에 기반하여 지역공동체와 국제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핵심적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그간 학교 중심의 혁신을 추진해온 행복배움학교가 최근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과 지속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미래형 혁신학교’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행복배움학교가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의 학교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9).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 김다원(2016).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역할과 기여: 호주 초등 지리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3-28.
- 김성천 (2009). 학교 혁신의 핵심 원리: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D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2), 59-89.
- 김현진, 김은영, 이은상, 계보경, 이은환 (2017).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 2017-6.
- 나정함, 조대훈(2017).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구 발간 교육자료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907-933.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8). 세계시민교육학교 만들기(가이드): 전학교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
- 이은배, 강지혜, 이지연(2019). 체제적 학교혁신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5(2), 325-346.
- 이지연, 권나영, 강지혜, 오정현, 이은배(2019).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혁신 현황 및 과제: 중요도-수행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5(2), 395-423.
- 이지연, 이은배, 강지혜 (2018). 인천 혁신미래교육 기반의 학교혁신 기본방안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연구보고 2018-10.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2020 동아시아시민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2020 행복배움학교 운영 기본계획.

Dubois, D. D. (1993).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MA: HRD Press, Inc.



03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초·중·고교 현장 원격수업 실시,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사무관 지용준

1.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원격수업

2019년까지 우리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교육이 접목된 원격교육을 계속 구상해왔다. 정보통신망이 집약적으로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원격교육은 물리적인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리 교육당국은 원격교육이 농어촌을 묶는 공동교육과정의 토대이며, 학교가 먼 도서지역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일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미래전망이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우리 교육에서 원격교육은 점진적으로 자리 잡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과 달리, 2020년 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 교육으로 들어왔다.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는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거주지에서 수업을 듣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원격교육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온라인 개학 초기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량 과다로 인한 서버 과부하 등 플랫폼 안정화 문제도 발생하였고, 수업에서는 온라인에 적합한 수업 콘텐츠 개발, 출결 관리 등 학사행정 전반에서 걸림돌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빠르게 TF팀 구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였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협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왔다.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현장의 After Corona, 전염병을 이기고 교문이 다시 활짝 열린 학교에서 원격수업은 어떻게 남아 있을 것인가?

2. 원격수업의 정의 및 형태(교육부, 2020)



2020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원격 수업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의미한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교육처럼 교수-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적 원격수업과 온라인 녹화강의에 기반한 수업과 같이 교수-학습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원격수업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줌(Zoom), 구루미(Gooroomee) 등 화상회의·실시간 의사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이 카메라를 통해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시간 토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업이다. 두 번째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교사가 사전에 촬영한 강의 콘텐츠에 기초한 수업으로, 강의형과 강의·활동 결합형이 있다. 강의형은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기존에 대학에서 다룬 사이버 강의, e-러닝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활동 결합형은 학생이 EBS 강좌,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댓글 등을 통해 원격 토론을 진행하여 강의와 강의 후 활동이 이어지는 수업형태이다. 세 번째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교과별 성취기준에 기초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과제를 완성하고, 교사가 피드백하여 이를 성취기준 판단에 활용하는 수업이다. 네 번째로,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원격수업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수업형태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업 참여 독려 및 출결관리를 위해 실시간 강의형을 권장하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녹화 강의 등을 활용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 대부분이며, 실시간 강의형은 기술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6% 미만이었다(KERIS, 2020).

3.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한계점

1) 교육적 효과

◆ 학생 삶의 질 개선

직장인에게 재택근무는 출퇴근에 드는 시간 감소, 컴퓨터를 닫으면 바로 내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을 준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거주공간의 간격이 사라져, 등하교에 드는 시간이 절약되었다. 그리고 학교 종료 이후 자기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그 시간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운동이나 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생은 통학 거리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원격수업의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치 않아, 통학에서 학생 안전이 확보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수면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식사가 가능한 점 등 학생 건강 증진에도 의의가 있다.

◆ 반복 학습 가능

현재 학교에서는 실시간 강의보다는 녹화강의로 원격수업이 주로 진행된다. 녹화강의는 물론이거니와 실시간 강의도 교사의 의도에 따라 강의저장이 가능하며, 학생은 수업 종료 후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을 놓치면 다시 듣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수업을 놓쳤다 하더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반복 재생하여 습득할 수 있어서, 복습의 편의성이 증대되며 학습 결손 역시 줄어나갈 수 있다. 아울러, 반복 학습, 시차를 둔 학습의 도입은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 시간처럼 원하는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 다양한 콘텐츠 제공

원격수업은 스마트 기기가 익숙한 학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기회가 된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러 콘텐츠를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수업 전·중·후에서 실험 영상과 같이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스스로 유튜브, EBS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다양한 수업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시청하며,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고민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되었다. 기존에는 교실이라는 시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오직 교사의 수업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은 교실이라는 시공간 제약을 깬다. 이제 교사의 콘텐츠는 동시간에 다른 동료강사, 혹은 외국의 교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것과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원격수업의 확대는 콘텐츠 질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소결 - 개별화 학습의 확대

원격수업의 확대가 가져온 장점은 ‘언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학생이 배우는 내용, 심지어 시공간까지 조절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결국, 원격수업의 확대는 개별화 학습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 한계점

원격교육의 한계점이 중요한 이유는 원격교육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어려움이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에 원격교육의 단점이 두드러진다면, 이는 학습 격차, 계층 갈등으로 변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원격교육이 가져다주는 한계점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 가정 내 돌봄 부족

학교와 정주공간의 일체화는 학생, 학부모에게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원격교육은 큰 부담이다. 학교의 개학은 학부모에게 ‘장시간 육아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교사들이 학생을 맡아주어, 학부모는 학교 일과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새 유행하는 말인 ‘돌봄돌봄(돌아서면 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을 지칭)’이듯, 가정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이들을 24시간 동안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이러한 돌봄 부담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도 타격을 주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집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듣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 직장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아 스트레스까지도 겪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종식이 기약 없는 상황은 학부모에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스트레스를 주어 육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전 학교 급식을 통해 최소한 점심 식사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학교 급식은 영양사가 해당 연령기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 급식은 학령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적기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패스트 푸드 등 간편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청소년기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영양 불균형의 문제는 다시 학부모에게 아이의 식사를 하루 내내 챙겨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 스마트 기기로 인한 학습 불평등

집은 원래 회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에는 1인당 개인용 컴퓨터가 1대 이상 있지만, 집에서는 가정 당 개인용 컴퓨터가 1~2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교육은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가령,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데스크톱이 1대면, 누가 데스크톱, 화상 장비를 써야 하는가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진다. 필자가 사는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격교육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 ‘집에 컴퓨터가 1대뿐인데 어떡하나,’ ‘갑자기 2대를 어떻게 마련하며, 지금 컴퓨터와 기타 전자기기 시세가 많이 올라 엄두가 안 난다’라는 등 걱정이 많았다. 원격 수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5~9월까지 재택근무(재택연수)를 하였다.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는 막냇동생이 중학생인 동료가 있었다. 이런 경우, 온라인 개학과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PC를 서로 돌려쓰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동료는 동생과 화상 회의를 쓰는 수업, 그렇지 않은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동생과 시간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원격교육, 재택근무의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집에서 필요한 스마트 기기는 이전보다 급증했다. 그러나 가정 경제 여건상,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돌아가는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게 되면 학습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 학습격차 확대

원격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능력에 따라 학습 능력이 영향을 받는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끼리 동일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수업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수업 내용 자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활용 능력은 교사의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는 방향을 알려 줄 수 있고, 수업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 제약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의 차이가 이전보다 학업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수업의 이해도, 복습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탐구하는 역량과 같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높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학업성적이 높은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진다. 원격수업으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지고, 여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여유 시간을 스스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적이 크게 달라진다. 학업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보충하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여건 또는 역량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오히려 학습에서 멀어져, 학업 결손이 커지고, 점차 학습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고3 9월 모의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매기는 영어 영역에서 중상위권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7%p 가량 감소하였으나, 반면 5등급 이하 하위권 비율이 6%p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 고3 6월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난 점을 볼 때, 원격수업의 확대로 다소 학생 간의 학업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EB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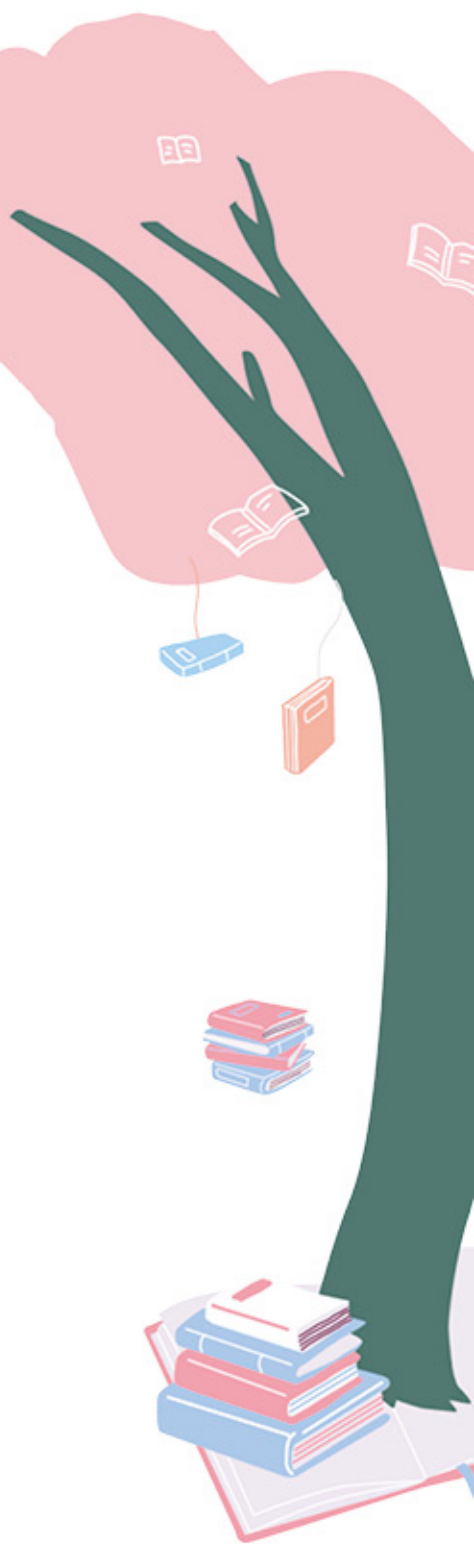
4. 학교 현장 앞으로의 변화

1) 상시체제로의 원격수업

코로나19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언제든지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학교는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비는 필수가 되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등교수업은 중지될 것이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지금처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혼합수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원격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보충·심화학습 목적의 보완체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상시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KERIS, 2020). 아울러 중고등학생의 54%가 원격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비슷한 비율로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오프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복습을 돕고자 강의를 녹화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된 블렌디드 수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다양한 학습 유형의 등장

코로나19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이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 그래서 감염병 등 위험 사회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자 홈스쿨링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구글사의 검색어를 통한 홈스쿨링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월평균 20%에 그쳤으나, 2020년 2월 이후 월평균 60%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KERIS,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유형이 등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 유형이라는 것은 비단 지금의 홈스쿨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홈스쿨링, 튜터링, 온라인 학습, 마을 공동체 기반의 교육과 학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새로운 학습들이 학교와 연계되는 형태로, 또는 새로운 학습 간에 서로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학습 구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OECD, 2020). 이처럼 다양한 학





습 유형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원격수업을 통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생은 원격수업에서 개별화 학습을 경험하였다. 이를 경험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해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설계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구조가 나오게 될 것이다.

3) 교육 허브로서의 학교

다양한 학습 구조의 등장은 학교를 교육의 중심에서 교육의 매개체, 허브로 역할을 변하게 한다. 이전에는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이 교육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였고, 학원, 가정이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보완 기능으로서 교육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을 포함한 많은 기관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학교는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교사가 아닌 사람도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OECD, 2020). 이제 학교는 교육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허브, 매개체이자 공동체의 교육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2.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확대로, 개별화 학습 확대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사, 학생의 필요로 원격수업은 우리 학교수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원격수업이 더욱 확장된다면,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온라인에서는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수업)이 가능해진다. 플립드 러닝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체험활동이 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체이다. 플립드 러닝이 정착되면, 교사는 이제 교과 내용 전달의 부담을 덜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어지는 체험, 협동학습을 하게 된다. 협동학습, 체험학습의 확대는 학생의 정서 발달, 학습 발달에 모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기초학력 필요 학생에게는 플립드 러닝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기초학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2) 학교의 사회적 역할 모색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일부 학부모는 등교는 거부하였으나, 학원을 보내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학교보다 학원이 우선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을 통해 수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격은 그러한 친밀감을 배양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교사도 다른 인터넷 강의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로 경쟁해야 한다. 이제 교사 콘텐츠 제작 역량이 결국 가르치는 역량이 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에듀테크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배경 역시 콘텐츠 제작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교사가 교육자로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콘텐츠 경쟁은 교사에게 피로감을 준다. 교과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누어야 할 파이의 총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콘텐츠 경쟁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경쟁이나 출혈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흥미를 끌고자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 학교는 이제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기관에 머물러서 학원, 유튜브 등 다른 교과 매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 마을의 교육 허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강사, 시민을 학교로 불러 모으는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콘텐츠로 타 기관, 교육주체와 경쟁할 것인지, 교육을 서로 이어주는 사회 플랫폼 기관으로 탈피하여 학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우리 학교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3) 배움이 주는 기쁨, 학습하는 방법(Learn how to learn)에 대한 교육 필요

개별화 학습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려면, 결국 배움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을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배우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풀어가면서 얻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을 단편의 수단으로 생각해왔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체벌, 훈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개별화 학습이 확대되면, 이러한 고통으로는 더는 학생들을 압박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배움이 주는 기쁨을 알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학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도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즉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 전달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앞으로 삶에서 계속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평생 동안 학습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정규 학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와 같이 전문교과가 더욱 발달하여, 학교 수업을 듣는 기간이 길어질 것을 예측했다(OECD, 2020).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은 불가피하게 원격교육으로 교육환경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기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원격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원격교육이 필요한 시대적 변화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처럼 선제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은 우리 학생들의 학업 결손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코로나19는 단기적, 일시적 충격이 아닌, 상수로서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학교는 초기의 혼란을 딛고 등교와 온라인을 병행해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결국 종식될 것이며, 학교는 다시 아이들을 맞을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원격교육에 모두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시 열린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의 학교가 아닌, 새로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라는 변화에 우리가 빠르게 맞섰듯, 이제 우리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맞서야 한다. 원격교육을 맞춤형 교육, 개별화된 교육의 주춧돌로써 활용하여, 도서지역과 대도시의 교육격차,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실 등 우리 교육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 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보도자료.
2. 계보경, 백송이, 손정은, 김상운(2020). COVID-19 확산예방조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중고 원격학습 현황 1차 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3. 계보경 외(2020). COVID-19에 따른 초·중·고 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4. 정영식, 서정희(2020). 비대면 시대의 원격수업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5. OECD(2020).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 42-51.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2015~2020

2015년 연구과제명

- 2015 행복배움학교 1차 년도 성과 분석
-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15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2015 행복배움학교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01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학교에 관한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언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 사업 실태 분석(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혁신 정책 연구 사례집
- 국제이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 초등 평가 방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2016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연구 : 2년차 행복배움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공모 사업 평가모델 개발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 교원연수 실태분석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관리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교육 중·단기 발전방향 연구(1차년도)
- 공감100℃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평화의 길을 여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문화 만들기
-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야기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사례 모음집
-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 인천형 교원연수모형 개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2차) 개선방안
- 인천형 학교혁신문화 측정도구 개발
- 인천 생태환경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
- 학교와 지역 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인천형 교원연수 모형 후속 연구

2017 연구과제명

- 행복배움학교 발전 방안 연구
- 2017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유아체험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 교무행정지원팀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실태 분석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요소 개발 연구
- 고등학교 핵심역량 기반 평가모델 연구 -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를 중심으로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교무학사·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연구
- 중학교 신입생 반배치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탐색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정책 평가 모형 연구

- 초등 예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러닝 활용 방안
-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
-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 미래학교 환경 및 공간 구성 방안 연구
- 초·중·고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및 활성화방안연구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8 연구과제명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개선
- 인천 학교혁신 실태조사 - 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교직원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사양성 개선방안
-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교장공모제 내실화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교과별 과정중심 수행평가 기록 개선 방안 연구
-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식조사 및 방안
-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선 방안 연구
-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개발 방안 연구
- 지역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
-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직원의 학교 적응 지원 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전문직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지원 방안
- 학부모 학교 민원 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지원방안 연구
- 학교 환경과 공간 구성 방안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2019 연구과제명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발전 방안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 인천 중·고등학교 구성원 성인지감수성 실태조사
- 빅데이터 기반 인천교육정책 지원 방안
- 동아시아시민양성을 위한 인천형교육과정 개발
- 평화통일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 필수 연수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 인천광역시 학생 자살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응방안 연구
- 현장적합성의 재개념화를 통한 초등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인천 미래학교 공간 혁신

2020 연구과제명

-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평가도구 개발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동아시아시민 진로교육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원인 분석 및 교육적 대응 방안 탐색
- 인천 강화군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 빅데이터 활용 단위학교 정보제공 방안
- 인구절벽시대 미래 교육정책 방향
-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학생선거교육 방향 연구
-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인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현황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 학교업무정상화 사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직무 여건 지원 방안 연구
-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분석과 AI 플랫폼 구성 방안
- 인천광역시 초·중·고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 연구
-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개발

